

2019년 제3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速記録)

- 주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일시 : 2019. 9. 26. (목) 10:00 ~ 12:2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센터프라자 808호

Tel) 02-537-0889 Fax) 02-738-0123

2019년 제3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 ◆ 일시 : 2019. 9. 26.(목) 10:00 ~ 12:20
-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 참석자 : 표석분과 위원 등 7인

- ◆ 심의안건 (총 8건)
 - 표석 신설 재심의 : 1건
 - 표석 신설 사전심의 : 2건
 - 표석 문안 수정 재심의 : 1건
 - 표석 이전 및 문안 수정 심의 : 4건

(개회)

○ 000 위원장

그럼 2019년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이 총 8건이네요. 신설 재심의가 1건, 신설 사전심의가 2건, 문안 수정 재심의가 1건, 표석 이전 및 문안 수정 심의가 4건.

먼저 제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장소에 대한 사전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표석 신설 사전심의

<제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장소>

(사업관계자 입장)

○ 사업관계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과에서 왔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9/K0926/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2/55



저희가 오늘 표석 신설을 신청해드렸는데요. 오늘 표석 신설 신청과 관련해서 보고는 네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사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파트는 사료 조사 및 분석, 그다음에는 설치 예정지, 표석 문안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 사료 조사 및 분석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신 배순학 전 사무총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청 사유인데요. 1920년도 7월에 조선체육회가 창립되면서 첫 번째 대회로 1920년 11월 4일에 배재고등학교에서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전조선야구대회는 전국체육대회의 효시가 됐는데요. 전국체육대회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체육의 엘리트 스포츠의 산실이나 지역 체육 인프라라든지 균형발전을 하는 데 굉장한 견인차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전국체육대회는 이렇게 해오면서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스포츠 대회이자 스포츠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올해 10월 4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다시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전국체육대회의 효시가 됐던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가 개최되었던 당시 배재고등학교 운동장에 기념 표석을 설치해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체육계의 발전을 응원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는 사료 조사 및 분석에 관한 것인데요. 그것은 배순학 전 총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배순학(대한체육회 고문)

제1회 전국체육대회를 하게 된 게 그 당시 일제강점기인 1920년 7월 13일에 조선체육회가 창립됐습니다. 그때는 체육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관장해서 하는 조선체육협회라는 게 있었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하는 조선체육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상당히 알려져 있었는데 조선체육회가 일본 사람들이 관장한 조선체육협회보다 1년 늦게 발족을 했어요. 조선체육회가 발족이 되면서 “우리가 체육회만 만들 게 아니라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야구대회를 하게 됐는데, 왜 야구를 했느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유학을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동경 유학생들이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기미독립운동이 1919년에 벌어졌잖아요. 그 정신을 받아서 체육회를 만든 거예요. 그



래서 그 유학생들이 돌아와서 YMCA와 협의해서 대회를 하는데 왜 야구를 했느냐면 일본 유학생 중에는 아마추어 야구를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경기 규칙이라든가 도구 등도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야구를 했는데요.

왜 배재학교에서 야구를 처음 했느냐면 그 당시에는 서울에 운동장이 용산철도운동장이라고 야구장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또 용산 연병장, 지금 국방부 자리에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훈련원이라고 동대문운동장 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전부 일본 사람들이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Apenzeller 선교사가 하고 있는 배재학교에서 하는 게 좋겠다. 배재학교의 축구장에 야구장을 만들어서 야구대회를 했어요.

이 첫 대회에는 10팀이 나왔죠. 중학단이라고 해서 청년부이고, 청년단이라고 해서 일반부, 그러니까 두 종별의 열 팀이 나와서 했는데 그게 시초가 돼서 전국체육대회의 첫 대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가지 탈도 많았지만 그 야구대회를 한 후에 조선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 종목을 늘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1929년도에 10회가 됐을 때 야구, 정구, 육상 이렇게 세 종목을 했고 그다음에 15회 대회인 1934년 때 야구, 정구, 육상, 축구, 농구 이렇게 다섯 종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온 게 지금의 전국체육대회의 시초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체육회로서는 배재학교에서 1회 대회를 한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게 지금의 100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최초로 했던 자리에 표석을 하나 세웠으면 하는 게 대한체육회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횃수는 얘기들이 있는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대회도 2차 대전 같은 전쟁에 한 해는 걸렸어요. 그래도 횃수는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체육대회도 중간에 일제강점기에 조선체육회를 해산도 시켰는데도 횃수가 계속 이어져가서 100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는 6·25전쟁 때 한 해를 걸렸어요. 부산에 피난을 가서 광주에서 31회 대회를 했는데 그때 전쟁 중에 체육대회를 하는 대단한 나라라고 하면서 IOC나 세계 체육인들로부터 상당히 각광을 받은 대회가 이 전국체육대회입니다.

○ 000 위원장

오늘 심의는 사전심의니까 체육대회 처음 개최 장소로서의 표석 설치의 타당성 여부만을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야 합니까?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 000 팀장

문안과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 000 위원장

지금 문안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 사업관계자

뒷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총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920년 7월 13일에 조선체육회가 창립됐다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나와 있고요. 이어서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가 1920년 11월 4일부터 3일간 개최되었다는 기사도 당시 매일신보에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져서 계속해서 1921년부터 1928년도까지는 사실 전체적인 종목으로 개최되었던 것이 아니고요. 개별적인 종목으로 전부 다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10회 대회를 맞이하면서 종합경기대회로 열렸다가 이후에 아직까지도 조직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개별종목으로 개최되다가 1934년도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전체 종합대회로서 열리게 됩니다.

당시 발행됐던 기사를 보면 1929년도 6월 6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제10회 전조선경기대회라고 해서 기사화가 됐는데요. 1920년도에 개최되었던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기산해서 1929년도 6월 6일에 개최된 것을 제10회로 기산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조선체육회가 일제강점기 때 1937년도에 일제로부터 폐쇄 조치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해방되기까지 7년 동안은 조선체육회가 활동을 못했 고요. 그 이후 1945년도에 해방이 되면서부터 다시 이런 경기대회가 현재 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1950년도 6·25사변 때 한 해만 개최되지 않고 여태까지 쭉 이어져 와서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제100회까지 이어져 오 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조선 전국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시에 배재고등 학교에서 열렸던 현황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900년도의 배재학당 위치인 데요. 현재 남아있는 건물 중 동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배재학당 역사 박물관으로 현재도 남아 있고요. 앞의 두 동은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다



음 장에 보시면 당시 경성 시가도라고 하는 1923년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지도가 있고요. 지도 안을 확대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동관이 되겠고요. 두 개 건물은 철거가 돼서 현재 그 건물은 없습니다. 없어지고 다른 건물이 세워진 것이고요. 오늘날에 보면 배재역 사박물관이 있고 여기에는 배재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여기는 제이피모간프라자라고 하는 건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이 자리가 배재고등학교 운동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배재학당 역사 박물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7월 23일에 저희가 찾아뵙고 이런 취지의 설명을 드렸더니 역사박물관 쪽에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왔고요. 취지에 공감을 해 주셔서 표석을 설치한다면 어느 쪽이면 좋겠느냐는 말씀을 나눈 것이 이 자리가 되겠는데요. 이게 현재 남아 있는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이고 당시에 있었던 운동장 자리였고요. 이쪽에 표석을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표석 문안은 저희가 두 가지의 안을 드렸는데...

○ 000 주무관

죄송하지만 이것은 원칙이 있어서 이 안에 따라서 명칭을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해야 하는데, 그래서 명칭과 문안에 대해서는 제안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지금 신청 단체에서 제안한 설치안과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 4~5페이지에 수록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업관계자

그래서 저희가 문안은 이렇게 1차적으로 표시했는데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나은 문안이 있으면 저희 쪽에 다시 말씀해 주셔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고요. 그 후에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회 대회가 열렸던 서울에서 또 다시 100회 대회가 개최되고 이 개최되는 100회 전국체육대회는 단순히 어떤 완성의 의미는 아니고요. 앞으로



또 다른 미래 100년에 대해서 미래비전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전국체전으로 만들고자 굉장히 많은 기념사업도 하고 준비들도 하고 있는데요. 바라건대 이 표석이 원안통과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가능하면 전국체전이 열리는 기간 중에 이런 제막식도 개최를 해서 많은 시민들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겼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000 위원

중간에 쉼 적이 있었는데도 그냥 횡수는 그렇게 하나요?

○ 배순학(대한체육회 고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 등 국제종합체육대회와 관례가 2차 대전 때도 올림픽을 한 번 중단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횡수로 다 집어넣고 그 사유만 '2차 대전' 이렇게 표시해서 횡수를 기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체육대회도 그런 관례에 따라서 6·25 때 한 번 못한 것과 해산되어서 못한 것을 기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회가 된 겁니다.

○ 000 위원

하나만 여쭙게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데요. 조선체육회가 1920년에 창립된 것을 기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창립이 돼서 첫 번째로 야구대회를 한 것을 기념해서 체육활동을 했다는 경우에 매일신보를 사료로 갖고 오셨는데 실제로 매일신보를 보면 야구대회를 한 게 아니라 축구대회를 한 것이 신문에 어마어마하게 나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고요.

○ 사업관계자

축구대회는 그다음에 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조선체육회가 성립이 된 것을 기념해서 거기에 표지석을 세우고 그게 전국체전의 기일이 됐다. 이



렇게는 설명이 가능한데 야구대회를 했던 장소를 기념한다고 하면 축구도 기분이 나쁘고, 또 일제강점기에는 뭐가 그렇게 신문에 많이 나냐면 빙상 경기가 신문에 많이 나요. 그게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빙상, 축구 그런 것 많아요. 그런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농구도 좀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신문에 본 기억으로는 축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야구를 했다 그래서 중심을 야구로 잡으면…

○ 사업관계자

야구 때문에 중심을 잡은 것이 아니고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설명을 잘 하셔야.

○ 배순학(대한체육회 고문)

역사적으로 순서가 우리나라에서 공식 경기를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야구 대회예요.

○ 000 위원

아니,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설명을 예를 들면 ‘배재고등학교의 야구’ 이렇게 쓰시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든 느낌으로는 야구가 너무 강조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조선체육회가 만들어진 장소에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급하게 결정을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 배순학(대한체육회 고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훈련원 자리라든가 용산연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일본 사람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3·1운동의 정신을 받아서 민족정신의 학교가 배재학교에서 제일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그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대회를 한 거예요. 장소가 없어서 거기서 야구대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육 단체가 창립되어서 제일 처음 한 게 야구대회이고 공식 경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한 게 빙상, 빙상도 오래됐어요. 빙상이 더 오래됐어요, 정구도 오래됐고요. 그러나 공식적인 대회를 한 것이 전조선야구대회가 제일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전



국체육대회를 이어갔기 때문에 또 장소는 아까 얘기했던 일본 사람들이 관장하는 장소에서 하기 싫어서 배재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기념한다는 거죠. 체육회가 YMCA 회의실에서 한 체육회를 기념해서 할 성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체육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문제인데 제 입장에서 보면 조선체육회가 성립이 돼서 전국체전을 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야구를 했다.’ 이러면 축구가 기분 나쁘고 빙상이 기분 나쁘고 정구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 000 위원장

역사적 사실로서 전국적으로 체육대회를 했던 것으로서 야구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문제는 문안을 만들고 명칭을 정하는데 과연 그때 이름이 전국체육대회라는 말로 가능하냐. 아니면 전조선야구대회를 처음 개최됐던 장소라는 이름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이 하나가 될 테고, 또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일제강점기에 빠지고 전쟁 때 빠진 것들을 몇 회, 몇 회 하는 것이 올림픽 등의 관례에 따라 ‘회’라고 쓰는 말이 맞느냐 아니면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몇 주년’으로 해서 쓰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이 한 번 정도는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제라면 지금 거의 인정하는 얘기지만 이 표석 설치가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얘기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내셔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것은 10페이지에 보면 일제강점기 때 이미 거기서부터 계산해서 17회나 15회 때 전조선종합경기대회라고 했으니까 제1회 때 야구나 축구나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때 이미 합의를 본 거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의 말씀은 저 표석에 야구를 강조할 것이냐 아니냐. 그 얘기로 가는 것이면 단순한데 여기서 정리를 하고 논의를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순서의 문제니까요.

(사업관계자 퇴장)

○ 000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회 창립 장소라고 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YMCA에 설치해야 하나요?

○ 000 위원

그런데 체육회를 여기에서 창립한 것은 아니고 체육대회를 연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 000 위원

그런데 문안에는 야구를 뺐어요.

○ 000 위원

그런데 야구를 빼는 것도 이상해요. 왜냐면 지금 종합체육대회인데 그럼 그때 종합체육대회를 했나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요.

○ 000 위원

그런데 YMCA를 얘기하면 거기에 표석이 수십 개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지금 독립선언서부터 다 있는데 거기에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죠.

○ 000 위원

그런데 발표하실 때도 야구를 강조하시고 배재고등학교를 강조하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 000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월 4일부터 100회 전국체육대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아마 일부러 서울에서도 한 것도 같아요. 1회 개최 장소 이니까요.



○ 000 위원장

그런데 명칭이 ‘전국체육대회 개최 장소’ 내지는 ‘체육대회의 발상지’로 명칭이 들어가면 그 명칭에 대한 내용을 쓰고 이것은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식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명칭이 전조선야구대회의 개최장소로 먼저 들어간다면 그 뒤에 전국체육대회로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 000 팀장

나눠드린 자료 16쪽에 보면 그중에서도 두 가지 안을 냈는데 개최 발상지라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제목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문구를 하시죠.

○ 000 위원

그러니까 1안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안을 중심으로 확정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명칭은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제1회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전국체육대회 발상지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지. 시에서 요구한 제목이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나요?

○ 000 위원

100회를 쓰려고 하니까 1회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100회가 없으면 1회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시민들이 알아듣는 거야 별 차이 없을 텐데 인식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을 텐데요.

○ 000 위원

시민들은 예전에는 ‘발상지’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요즘은 ‘제1회’ 이래야 더 편리한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발상지’가 더 편한데요.



○ 000 위원장

그러면 문안 제2안을 중심으로 해서 권장한다고 해서 다듬어서 하라고 할까요?

○ 000 위원

그렇게 하시죠.

○ 000 주무관

그러면 명칭은 '제1회 체육대회 개최지'로 하되, 문안은 2안으로 가급적 진행하는 것으로.

○ 000 위원장

예. 2안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000 팀장

혹시 2안에 대해서 여기서 저희가 공부할 것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죠?

○ 000 위원

죄송합니다만, 1안을 보니까 2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끊어도 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야 하지만 1안도 뒷부분만 고치면 쓸모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표석을 보면 1안은 필요 없는 얘기가 뒤에 붙었어요. '100회'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거든요.

○ 000 위원

그것을 빼고 이 대회의 경과를 써서 어떻게 발전했다 이렇게 해서 나가면...

○ 000 위원

그렇게 하면 2안이 더 낫죠.

한국 컴퓨터 속기 사무소



○ 000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호흡이 아주 가쁜데... 저희 투로는 맞아요. 관계대명사도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 000 주무관

만일에 문구가 문제가 되시면 국립국어원의 전문가들한테 검수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용을 보셔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고 빠져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결정해 주시면 그 선택한 안으로 교열하시는 분한테 다시 검토를 받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렇시다. 2안은 뒤에 '1920년 11월 4일부터 3일간 개최되었다.' 이런 말은 안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말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100회 전국체육의 효시가 됐다.' 이 뒤의 말이 서울시의 업적을 기리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말이 길어지니까 빼고 넣고는 다음에 한 번 보시죠.

○ 000 주무관

그러면 명칭은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하고,

○ 000 위원장

'개최지'입니까, '개최 장소'입니까?

○ 000 주무관

신청자는 '개최 장소'로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소라는 쓴 표식 명칭은 없고요. 대부분 '터', '개최지'

○ 000 위원장

'개최지'로 하면서 포괄적이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 000 주무관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하고 2안으로 하되 그러면 날짜와 연도는 삭제하는 것으로 할까요?



○ 000 위원

연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11월 4일 개최되었다.’ 이래도 말은 돼요. 보통 개최된 날은 하니까요.

○ 000 주무관

연월일까지는 집어넣되 ‘3일간’이라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 000 팀장

내용은 ‘전국체육대회의 효시가 된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가 이곳 배재고 보 운동장에서 1920년 11월 4일부터 개최되었다.’

○ 000 위원

‘11월 4일 개최되었다.’

○ 000 위원

한 문장이어도 돼요?

○ 000 주무관

예. 한 문장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수정 가결하시는 것으로.

○ 000 위원장

예.

<이범진·이위종 부자 생가 터>(가칭)

○ 000 주무관

두 번째 안건으로 이범진·이위종 부자 생가 터 표석을 신설 신청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관계자 입장)

○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범진·이위종 부자 생가 터 표석 설치 청원에 대한 설명을 대표 청원인 이승우입니다.

저는 최근에 김영사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시베리아의 별 이위종’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을 지난 4년 동안 집필하면서 현재 중앙우체국 자리가 이범진 선생과 이위종 열사가 살았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계신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범진·이위종 열사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약력을 소개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범진은 1853년에 태어나서 낙동 염라대왕으로 유명했던 이경하 형조판서, 한성판윤 등 금위부 부사를 역임했던 이경하의 서자입니다. 이범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이분은 잘 아시다시피 1906년도의 고종의 아관파천을 주도해서 고종을 아라사 종사관으로 파천시켰던 주도자입니다. 그 후로 법부대신을 역임하다가 주미 전권 공사로 나가게 됩니다. 1896년에 주미 전권 공사로 나갔다가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3국 공사로 전임됐다가 러시아 전권 공사로 다시 전임이 됩니다. 1910년 국치를 당한 후에 분노를 해서 1911년 1월 26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결하기 전에 모든 유산을 미국의 대한국인회, 만주의 한국인 학교 그리고 신문사, 안중근 등 항일투사들 유족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자손들에게는 이위종에게도 단 1루블의 유산을 상속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다 분배했습니다. 이범진 열사는 1991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훈했습니다.

이범진의 아들인 이위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종 선생은 1884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야말로 조선의 로열패밀리로 성장했습니다. 이범진 열사의 차남입니다. 이위종은 프랑스 생 시르 육군사관학교와 러시아 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이위종은 110년 전에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3개 국어에 능통했던 유일무이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위종 열사는 1907년 이상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9/K0926/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15/55



설, 이준과 함께 헤이그 2차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됐습니다. 그다음해인 1908년도에 잘 아시는 연해주 연합의병 동의회 회장으로서는 안중근과 국내 진공작전을 벌였던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이후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볼셰비키 장교로 전환을 해서 기관총 부대 사령관으로 복무하면서 일본군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이고 하는 전투마다 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920년대, 정확하게 어느 해라고는 추정할 수 없지만 1921년도 내지 1923년도에 시베리아에서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위종 열사는 1962년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훈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시한 생가 터 표석 설치 근거자료를 간단하게 해설하겠습니다. 1972년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범진이 혼인을 한 이후부터 지금 회현방 낙동의 현 서울중앙우체국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낙동 염라대왕 이경하의 집이 지금 중국대사관 자리입니다. 중국대사관 자리에서 아버님 슬하에 있다가 다시 분가를 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1884년 5월에 이범진이 여기에 거주했다는 기록은 확실합니다. 그 기록의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사에서 '이범진 사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첨부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가 이범진의 생가 터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범진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차남 이위종을 데리고 1896년 미국 공사로 도미한 이후에도 부인 풍양조씨가 가솔을 거느리고 이곳에 계속 거주했는지는, 물론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자료로써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 있던 기범진의 장남 이기종이 이위종보다 12살 위입니다만, 그의 부친 이범진과 아우 이위종이 1909년도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기종은 감옥 생활 중 혹독한 고문을 당해서 출옥 후에 사망하였으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일제에 의해서 몰수당하고 한 가문이 멸문을 당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기종은 옥살이를 하고 나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집에서도 죽지 못하고 밖에서 객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제시했던 제 참고문헌은 진유광이라는 사람이 지은 '중국인 디아



스포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1차 근거로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진유광이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한국 신의주에서 1916년에 태어나서 한국화교협회장을 장기간 역임하여 근현대사의 한국화교 역사에 매우 정통한 사람입니다. 진유광이 1981년까지 중앙일보의 요청에 의해서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내용을 1983년에 책으로 묶어 출판한 책이 한국화교사화가 이 책의 원전입니다.

47쪽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 '당시 민간조직이 설립된 후 1884년 5월에 청국 상무공서 옆에 있던 회현방 낙동 현 중앙우체국 자리에 중화회관을 설립했다. 이 중화회관은 오늘날의 상공회의소와 유사하며 화교협회의 전신이기도 하다.' 이하 중략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화교들이 이범조, 이범대 두 형제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에 이범진의 토지도 매입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범대와 이범조는 이범진의 사촌형제입니다. 이분들이 현재 중앙우체국 자리에 세 형제가 나란히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집이 바로 이범진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1884년도 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수당이라는 청국 공사가 돈을 5,300냥을 대서 이범대와 이범조의 양쪽 집을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중앙회관을 설립하려고요. 그런데 이범진이 "죽어도 팔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이경하가 중국 대사관 자리인 그 집을 청국 오장경한테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나중에 진수당이 청국 공사관을 개설을 해서 대만대사관으로 갔다가 다시 또 중국 대사관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경하가 임오군란 때 그 책임을 지고 고금도에 유배를 가 있는 상태 중국 대사관 자리를 청국에서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원한이 사무쳐 있는 상태에서 자기 집까지 또 팔라고 그러니까 결코 팔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이범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정이 굉장히 담대하고 괄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당시 사간원의 정6품 자리인 정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라고 해도 안 팔고, 일설에 의하면 집을 안 팔면 사람들이라도 왔다 갔다 통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최초로 그렇게는 하겠다. 그래서 중앙회관을 설립했는데 이범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인들이 통행을 하니까 양쪽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가운데에 담장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청국 상인들 30명이 이범진을 납치해서 상무공서로 데려가고 거기서 테러를 가하고 집을 팔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고종실록 1884년 갑신년 윤5월 1일자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날짜로 승정원일기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9/K0926/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17/55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역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진유광의 ‘중
국인 디아스포라’라는 책을 증거로 냈습니다.

전우용 박사도 역시 ‘서울탐史’에서 이범대와 이범조의 소유였다. 계속 오
기가 생겨서 집을 팔지 않았다는 가능성이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 제 설명이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 책을 집필하면서 그 터가 분명히 이범진이 오랫동안 거주했고 그 자리
에서 이위종 열사가 태어나서 결국은 1896년도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미
국으로 건너갔다는 것이 저는 확실하게 증명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실을 잘 검토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자료를 보시
면 아실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범진 열사의 첫째 아들이 이기종,
아까 일경의 고문을 당하고 정신분열증으로 죽었다는 분의 손자이자 이
범진 열사의 증손자이고 종손이신 이용갑 선생님을 1분만 모시겠습니다.

○ 배석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범진 선생의 증
손자이고 우리 기념사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으니까 서류상으로 예를 들어 어떤 기구들이라든지 대한민국이 법적으
로 정하는 증빙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제가 그것에 대
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저희는 왜경에 멸문을 당해서 저희 친할아버
지는 서대문형무소에서 나오셔서 거리 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 뒤로 집안에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서 할머니하고 어머니만
모시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광대 깃발을 들고 구걸을 해서 어머니하고 할
머니를 봉양하시고 할아버지는 러시아에서 순국 자결하시고 삼촌은 행방
불명이 되고 아버지는 종로경찰서에 끌려갔다가 정신분열자로 나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80인데, 저희 본적지가 경기도고등학교학
교 옆의 화동입니다. 화동 11번지가 제 본적지입니다. 옛날에 그 관철동, 화
동 근처에 내시하고 상궁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할머니
손을 붙들고 그 상궁들을 만나고 내시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하는 얘
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너희 집은 이러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그리고 저의 가까운 친척 어른들의 말씀에 “너희 집은 어디였다. 너희 할 아버지는 어디서 살았다.” 이런 얘기를 아까 얘기하신 그대로 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못하시겠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가 거기에 사셨다는 것이고 1993년도에 서울 600년사 기념식에 제가 서울시청의 초대를 받아서 그때 받은 책이 1993년도 서울시청 역사편찬위의 소인이 찍힌 책을 제가 하나 받았습니디. 그 책에 낙동대감이 살았던 집은 어디이고 그런 얘기가 다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니까 말씀은 더 못 드리겠고 잘 참고하셔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선생님들께 물어보실 것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상의하시죠.

○ 000 위원

제가 여쭙볼게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이위종 열사님이 1884년도에 태어나셨다고 되어 있고 저희 자료나 역사학 자료에는 1887년에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는 건가요?

○ 관계자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태어난 해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1884년, 1885년, 1886년, 1887년. 1887년도는 보훈처 기록에 생년이 188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광평대군 족보에 보면 188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1885년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하바로프스크에서 발간된 러시아 문서철에서 이위종 열사가 소위 사회주의 불세비키당에 입당하면서 냈던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1884년도 생이라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그 태생연도가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이 책에 대해서 1884년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제가 책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생연도로 봐서 1887년이라고 한다면 생 시르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한 나이가 역산을 해보면 15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로 봐서는 조금 무리죠. 프랑스에서는 보통 18살~19살 정도가 되어야 가는 곳인데 무리예요. 3~4년 차이가 납니다. 또 더구나 1907년도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때 특사로 참가했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한국인의 호소(A Plea for Korea)’를 할 때 1886년으로 하면 스물한 살 때이고 1987년으로 한다면 스무 살 때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1984년이면 그 당시에 스물세 살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위종 선생이 1884년으로 한 게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상당히 타당하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자료 추적의 결과입니다.

○ 000 위원

또 하나는 중화회관의 건립연도가 188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건가요?

○ 관계자

예. 건립이라는 게 건물을 지었다는 게 아니고 설립이죠. 책에 5월로 나와 있는데 진수당 공사가 5,300냥을 줘서 양쪽 집을 사고 개관을 한 모양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개관을 하고 그 당시 개관할 때 집을 파냐 안 파냐의 문제가 있었다가 나중에 와서 팔지 않고 양쪽을 막아버리니까 그런 사달이 벌어진 것입니다. 1884년도에 개관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진유광의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제가 본 자료 중에 1888년에 이범진이 이조참판에 임명이 되는데 1894년에 형조참판에 제수가 되어서 참판을 지낸 기간이 대략 6년 정도 돼요. 1888~1894년까지, 중간에 다른 직함도 있기는 하지만 참판직을 그 6년 사이에 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있는 건물을 그린 도면 중에 참판 이범진가를 그린 도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면이 여기 위치가 아니라 박동이라고 해서 지금 청진동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 관계자

그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회 어디에서 입수를 한 겁니까?

○ 000 위원

그건 왕실문서로 내려온 거거든요.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 관계자

왕실문서라고 하면 어떤 왕실문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000 위원

조선왕실문서죠.

○ 관계자

왕실문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 000 위원

그런데 그 도면자료들은 유래가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아서 계속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데,

○ 관계자

박동이라면 저쪽 수표교 있는 근처를 말씀하십니까?

○ 000 위원

수표교보다도 더 북쪽인 청진동 옛날 그쪽이었는데 그 도면 안에는 참판 이범진가가 195칸에 그 옆에 현흥택 가옥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수령 방백의 집이 있어서 시점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도면을 14년 전쯤에 처음 봤는데 오늘 이게 있어서 그 도면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와서 시점으로 보자면 1888년이기 때문에 이위종 열사가 1884년에 태어난 것과 1887년에 태어난 것은 ‘이 땅이 생가냐 아니면 살던 집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어서 제가 연도도 여쭙보고 이후에 이 땅을 이범진 열사가 팔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그것은 어쨌든 지금 문서로 전달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 까요.

○ 관계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생가라고 하면 한자로 ‘生’자가 아시다시피 ‘나다’의 뜻도 있고 ‘살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물론 이위종이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이 ‘나다’라는 의미로도 쓰고 이범진과 이위종 열사



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살다’의 의미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 000 위원

이범진의 그 땅을 언제 팔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 관계자

그 기록은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것과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다 하셨는데요. 사료라는 것은 결국 실록하고 승정원일기인데요. 거기에서는 이분들의 집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료라고 하지만 지금 사료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화교 얘기도 다 몇 십 년 뒤에 자기 기억으로 쓴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이라도 예를 들면 1880년대에 외국인들이 집을 사게 되면 한성부에서 내 건물이라고 해서 기록들이 오고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식으로 영인본도 몇 권 있고 다 뒤져서 뭔가 찾아내지 않으면 후대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충분히 살았을 텐데 결정하기가 모호한 거죠.

○ 관계자

제가 아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렸습시다만, 근거 자료인 진유광의 ‘중국인 디아스포라’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자기 민족, 화교에 대한 자화자찬, 찬사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 아까 말씀하신 이범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만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범진 사건을 일으킨 청국의 상인들의 횡포가 부끄럽다는 사실이라고 기록을 해놨거든요.

○ 000 위원장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표석 설치의 구체적인 문안에 해당되는 내용 그 자체만 확실하게 규명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 관계자

더 이상 찾아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종이로 증거로 댈 수 있는 것은 이보다 더한 것은 나오기가 힘들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 000 위원장

예.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고 지금 승정원일기와 실록에 있는 것 자체는 거의 이범준 말년에 해당되는 생활근거지로서의 의미만 많이 담겨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이미 박동 지역, 현재의 인사동에서 약간 서쪽 방향 그쪽 일대 지역에 주거지가 나오고 있고 또 생가라는 말을 했을 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추세가 외갓집에 가서 출생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거주처하고 생가하고 내용이 다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회의를 할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보강할 것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지금 요청하신 내용이 부자의 생가 터이기 때문에 과연 부자가 한 곳에서 같이 태어났다는 확실한 자료가 현재 이 기록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 관계자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자료는 또 없거든요.

○ 000 위원장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없는 것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없는 겁니다.

○ 관계자

그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서 1872년도부터 이범진이 생활을 했다면 1884년도에 이범진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역사적 자료로 증거가 되니까 그 당시에 이위종이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구요.

○ 000 위원장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 000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두 분이 우리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평가는 다를 수도 있어요. 이범진을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평가는 다를 수 있어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청원하신 것처럼 오히려 저희가 늦은 거죠. 학자들이 게으른 거고. 그런데 지금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근거가 확실치 않아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쓴 것도 보면 이 자료로 제시하셨지만 결국은 그 중간에 이범진은 집을 넘기는 데 동의했다. 끝까지 산 게 아니라 집 팔았어요. 그 증거 중의 하나로 지금 000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1888년도에는 이것을 안 판 줄 알았는데 쪽 읽어 보니까 결국 압력에 못 이겨서 팔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원세개는 고종보다도 췌어요, 그 전후로 해서. 그래서 팔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범진이 이렇게 자주적인 췌대를 과시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1884년 언저리, 최소 1~2년 사이에 결국 팔았다는 말이에요.

○ 관계자

팔았다는 증거가...

○ 000 위원

지금 여기 선생님께서 제시한 자료에 팔았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유리한 것은 이 증거를 들이대고 불리한 것은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000 선생님이 제시했듯이 이런 자료보다 더 확실한 거주지명세지도가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판 거죠. 그 자료가 더 확실하니까요. 제가 이것을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영똥한 데에 영똥한 표석을 세우면 두 분한테 폐가 되는 거예요. 후손들은 더 잘 되자고 했는데 가짜 사진을 갖다 놓으면 영원히 왜곡을 시키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884년, 1887년 설도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 000 위원장

예. 그 정도 얘기하시고 위원들 간에 협의하도록 하고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니다.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관계자 퇴장)

○ 000 위원

사실 조선시대 서울 안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입전출이 무진장 심했어요. 거의 6년간 80% 정도 전입전출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여기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터가 그 두 사람의 동시의 생가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1884년에 이위종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땅은 저도 넘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집을 파는 건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정사에 기록하고 있으면 이것은 거기서는 그 결말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옮겼다는 얘기이고 사실 박동 근처에 있는 집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59칸이에요. 그것을 사실 보기 쉽게 하려고 캐드 작업으로 다 옮겨놨는데 박동 후문 쪽에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현흥택 집이 있고 이렇게 집 도면들이 같이 그려져 있어서 참판 기간을 보면 앞서 얘기했던 1886년부터 1896년까지니까 시기적으로도 이미 저쪽으로 옮겨간 시기이고 1887년이면 이미 이 집의 도면은 1888년에 그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사를 가서 직함이 참판이 됐을 때 그려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집을 두 사람의 생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서울 어느 땅도 사실은 누구의 땅으로 비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위당 선생 형제들의 집들도 사실 생가 복원하는 것으로 여기 서울시에서 안이 올라왔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이유로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도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 이 기록이 있지만 이분들이 태어나서부터 계속 이 땅에 살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중앙박물관에 있는 광무연간 이전에 있었던 호적들도 검토를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입전출이 되게 심했던 상황이었어서 이 부분은 안타까운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이런 표석을 세우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 000 위원

아까 그 도면이 됐든 그 지역에 생가라는 것은 아니고 거주지 이런 식의 것은 가능하기도 한가요?

한국 컴퓨터 속 기 사무 소



○ 000 위원

이것은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점으로 보자면 어쨌든 이위종이 태어나지는 않았어도 어렸을 적에 살던 곳이기 때문에 1888년부터 1896년이면 1887년을 넘어서는 시점이니까 그 시점의 거주터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이 도면을 통해서 땅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비정을 못 했어요. 오래도록 지나고 계속 보고 있는데도 그 지역이 되게 많이 변화한 것이어서 땅을 비정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000 위원

1896년도까지 살았다고도 볼 수 없어요. 또 이사 갔을 수도 있어요.

○ 000 위원

그럴 수 있죠. 참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이 집의 변화과정이 있는 도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는 참판 이범진이라고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집의 도면을 통해서 그 집의 일부분을 다시 그린 것이다. 아니면 이 전에 그렸던 것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으로 관계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시점은 어쨌든 참판을 했던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쯤에는 여기에 거주는 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있는 것이고요.

○ 000 위원

그런데 이 사람 집은 오늘처럼 드라마틱한 부분이 다 없어져서요. 그 사람들의 여러 개 집 중의 하나죠. 차라리 이 자리는 낙동 대감 이경하부터 오래된 근거지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 얘기는 아니잖아요.

○ 000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범진이 서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서자가 아니었으면 이경하 집이 이범진의 생가가 될 수 있고 처갓집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서자이기 때문에 근처에 집을 얻어줬겠죠. 이경하가 대원군 시절에는 최고의 권력자였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집만 아니어도 버틸 만한데 그 당시 원세개는 고종을 폐위시키려고 했을 정도로 고종도 꼼짝을 못하고 기록에 의하면 대신들 마음에 안 들면 정강



이를 찾다는 것 아니에요. 대신들이 그 스물다섯 살짜리한테 찢찢매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묶고 있는 바로 옆에 이게 들어선다는데, 그래서 이범진이 잘 아시다시피 반청의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나중에 조·러밀약에도 가담해서 친러파로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관파천에도 관여를 하게 되고 이래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나 집안적으로나 갈등이 심하다는 것은 아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고종실록에까지 거론이 된다는 것은 팔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게 선생님의 도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가라는 표현은 더 신중해야 하고 살았던 터도 생가지만 언뜻 떠오르는 것은 태어난 곳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점들은 좀 더 신중해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설치 자체를 보류하는 형태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뚜렷한 장소가 비정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자료에서 뒷받침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보류라고만 해도 되겠습니까?

○ 000 팀장

보류라는 것은 일단 조사 후에 재상정하는 것이라 원하시면 보류로 해서 나중에 자료를 더 보완해서 재상정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 000 위원

일단은 보류를 하시죠.

○ 000 위원장

생가 문제에 대한 자료를 더 보강하고 생가도 현재 이범진하고 이위종하고 같이 설정할 수 있느냐 이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 000 위원

아니죠. 1872년부터면 이범진은 그 전이니까요.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여기 스스로 1872년이라고 하고 이범진은 1853년생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 000 주무관

한국 컴퓨터 속 기 사무 소



저희 표석 명칭의 원칙에 따르면 굳이 한다면 ‘가옥 터’라든가 ‘집터’ 등이 타당한데요. 표석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을 때 그 명칭을 쓸 수 있는데 과연 이 표석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 명칭으로든 가능하나부터 검토하셔야 하거든요.

○ 000 위원

이 자리에? 자리가 더 중요한데요.

○ 000 주무관

예. 이 위치를 원하는 신청안에 대해서는 그 지점부터 검토하면 이 원안을 가결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 000 위원

집안으로서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새로운 사실은 아는 거니까요.

○ 000 위원

사료를 보완하라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000 팀장

사료 보완 후 재상정.

○ 000 위원장

제목 자체도 ‘주거 터’, ‘가옥 터’, ‘생가 터’라는 문제하고 또 이것이 현재 부자지간에 두 사람을 같이 해온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한 사람으로 빼든지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니까요. 일반적으로 어때요? 만약에 한다면 이위종으로 한 사람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 000 위원

그런데 이위종은 위험하죠. 1884년, 1887년 설이 있는데 1887년 설이 확실하다면 여기에 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범진은 살았던 것은 확실하죠. 이범진 주거 터로는 확실한데 이위종은 1887년이라고 하면 생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살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 000 위원

그런데 이 도면이 왜 왕실도면으로 남았을까를 고민해보면 결국 왕실에서 고민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왕실에서 사고파는 것이나 현지조사를 한 도면들이 지금 장서각으로 전달되어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결국은 청과의 관계에서 고종이 개입했다면 그 과정 중에 이사 갈 집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사 보낸 다음에 그 집의 기록을 같이 남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 000 위원

그게 표시된 신분들이 어떻습니까? 참판이 많은데.

○ 000 위원

사실 참판의 집을 왕실도면으로 남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예, 저는 이것을 캐드로 옮겨놓기는 했는데 ‘이참판 범진가’ 이렇게 딱 도면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현흥택 집 47칸 반’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요. 또 같은 시점에 쓰였던 사람들이기도 하니까요. 어떤 집은 ‘참판가’, ‘판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죠.

○ 000 위원장

그러면 사료를 보강해서 다시 오는 것으로 보류합시다. 물어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생가 터라는 문제, 시기는 이범진·이위종 두 부자간의 직접적인 장소의 관련성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내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기가 문제가 되니까요.

■ 표석 신설 재심의

<한남서림 터>

○ 000 주무관

다음 안건은 표석 신설에 대한 재심의인데요. 한남서림 터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의견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남서림에서 간송 전형필이 한남서림을 통해서 고서를 구입했다는 것을 회고하는 수서



만록이라는 본인의 자필 회고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단체에서 이 회고록의 원본을 입수하지는 못했고 이 회고록을 보성중고등학교에서 간행을 한 바가 있어서 거기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근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000 위원

저는 수서만록을 읽어보니까 그 과정들이 다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한남서림을 하게 됐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니까 확실한 근거가 되겠다는 생각은 들던데요. 일종의 수필 같은 건데요. 본인의 쓴 일기니까요.

○ 000 주무관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시면 이번에 정확한 명칭과 문안에 대해서 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를 해 주시면... 불필요한 내용이나 빠져야 할 내용이 있어서 지적을 해 주시면 다시 안을 작성하고 검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위치가 어디예요? 통문관 터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 000 위원

예.

○ 000 위원장

재심의인데요.

서울시 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표석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니면 전형필과 관계되는 것이면 전형필과 관련된 것들이 서울시 유적이 한두 군데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데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의미를 포함시켜서 설명하는 방향으로 해서 유도는 게 나온 건지.

○ 000 위원

잘못하고서도 잘못된지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땡땡거리고 사는데 그나마 어려운 시절에 의미 있는 일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나쳐



도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명칭은 그냥 쪽 줄여서 한남서림 터라고 해놓고 그 밑에 설명이 다 들어가 있으니 그렇게 해야죠. 우리 유적 명칭에 이렇게 주절주절 들어가는 것은 또 우습잖아요.

○ 000 주무관

가치평가나 판단의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000 위원

그리고 기왕 하면 그 문안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1919년 개업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1910년쯤에 이사 온 것이죠. 개업은 10년 전에 했고, 그러니까 결정을 한다면 문장부터 고쳐야 하죠.

○ 000 위원

생몰년도도 써줘야 합니까?

○ 000 위원

그건 쓸 필요도 없고요.

○ 000 팀장

‘개업했으며’가 아니고 ‘이곳에 이전했으며’ 이렇게 되어야 하나요?

○ 000 위원

‘이전했으며’도 조금 이상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일단 문안에서 ‘한남서림은’이라는 주어는 필요 없고요. 그런데 그 앞의 ‘서점’도 문학사에서는 중요해요. 전형필 전에도 책을 많이 만들었죠.

○ 000 위원

그렇죠. 그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을 전형필이 인수하는 식이 됐으니까요.

○ 000 위원

서로 또 후원해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재정난이 있을 때 살려야겠다고 해서…



- 000 위원
그렇게 보면 한남서림 자체의 의미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 000 위원
있으니까 전형필이 인수한 거죠.
- 000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되살려주는 것으로 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명칭은 ‘한남서림 터’로 하고 문안은 연도 같은 것을 다듬어야 하는 건가요?
- 000 위원
생물년은 그렇죠.
- 000 위원장
예. 문안은 좀 다듬고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에 또 한 번 봐야 하는 겁니까?
- 000 팀장
문안을 다시 보시고요. 그럼 여기서 팩트가 아닌 것은 ‘개업했으며’가 아니라는 거죠?
- 000 위원
경과에 1910년 전후에 개업했고 1919년에 이전했는데…
- 000 위원
차라리 ‘1910년 전후에 개업했으며’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런데 이 설명이 없으면 여기서 개업하고 줄곧 있다가 간송이 인수한 게 되니까요.

○ 000 위원

백두용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이 표석에 드러내야 하나요?

○ 000 위원

문안은 지금 저희가 최종확정해야 해요?

○ 000 주무관

불필요한 내용만 짚어주시면 그 안을 놓고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든 이메일로든 다시 검토를 받거나 검수를 받거나 하는 방법도 씁니다.

○ 000 위원

그렇게 정하시죠. 수정 문안을 만들어서.

○ 000 팀장

수정하기는 하는데 이메일로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셔야 하는 건이어서요.

○ 000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장을 한 번 살펴볼 수 있죠.

○ 000 주무관

그러면 빼야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데요. 한남서림은 1919년에 백두용 개업했다는 문구는 아예 삭제가 되어야 하고 명칭도 한남서림 터로 정정이 되어야 하고 전형필이 이 서점을 통해서 고미술품을 수집했다는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 안을 놓고 다시 작성을 해서 검토를 받는 것으로 할까요?

○ 000 팀장

‘한남서림은 1919년 백두용이 고서적 전문서점으로 개업했으며’만 빼면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문장은 된다는 말씀이지요?

○ 000 위원

그것을 다 빼면 너무... 중요한 게 빠지는 거죠.

○ 000 위원

고서적 전문서점이라는 단어는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문장을 바꾸면 '1936년 전형필이 백두용으로부터 고서적 전문서점' 그런 식으로 간송을 앞세우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제가 이따가 수정 문안 보내드릴게요.

▣ 표석 문안 수정 재심의

<월각사 터>

○ 000 주무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표석 문안 수정하고 위치도 이전하는 것에서 심의를 했던 월각사 터 표석에 대해서 위치를 이전하는 것은 다 월안 가결이 됐는데요. 문안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새문안 교회 역사관에 있었던 백두산 집사가 작성했던 문안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때 관련 분야의 전공자 선생님의 검토를 받아서 재심의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이에 제가 잔진엽 전문 위원님께 해당 민원이 들어온 문구와 현재 문안을 같이 놓고 검토를 한 결과를 의견서를 받았습니 다. 그 안을 놓고 제1안과 2안에 대한 문안의 가안을 받았습니 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이전되면 아까 원칙하고 다르잖아요. 배재고보 운동장...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9/K0926/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34/55



○ 000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 000 위원

그런데 주차장에 이전해서 놓으면 보이나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도 잘 안 보이는데요.

○ 000 팀장

원각사 터라는 표석이 그 전에 있었던 거죠?

○ 000 주무관

기존에 새문안교회 입구에 있는 대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지번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이 대로변이 아니라 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의 지도상에 표기되어 있는 주차장 근처가 사실은 원 위치에 가장 가까운 위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새문안교회 터가 아니라 현재 좌측에 있는 지도상으로 봤을 때 'H'가 표기되어 있는 데가 대우빌딩인데요. 그 빌딩 부지가 오히려 더 적합한 지번이라고 합니다. 저번 위원회 때도 대로변에 있던 것을 보다 원위치에 가깝지만 대로 안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표석이라는 게 거의 20~30년간 많이 알려지고 위상도 높아지면서 사람들 눈에 띄게 설치하는 것보다 원위치에 최대한 가깝게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지난 위원회 때도 있었습니다.

○ 000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배재고보 특칙을 뒤서 하라고 했더니 사람들 보는 데 해야 한다고 그러더니 이것은 더 한데요. 이것을 뒤에 놓으면 아무도 원각사 터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 000 팀장

배재는 인근 자리라서 가능하잖아요.

○ 000 주무관

넓은 운동장의 한 귀퉁이에 설치하는...



○ 000 위원

아니, 그쪽은 운동장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운동장과 건물 사이에요. 운동장으로 하려면 저쪽으로 더 가야죠.

○ 000 팀장

예. 배재공원 입구는 운동장이 아니거든요.

○ 000 위원

예. 건물하고 운동장하고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커다란 건물이 하나 더 있었어요. 계단 내려가서 한참 저쪽으로 더 가야 해요.

○ 000 팀장

그러면 러시아 공사관 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000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쭙본 거예요.

○ 000 팀장

계단 내려오면 보통 운동장하고 일치하지 않나요?

○ 000 위원

그런데 그것은 배재공원을 새로 조성한 거지요. 더 저쪽으로 나갔어야 해요.

○ 000 주무관

지금도 그 계단 단차를 이용해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하면 그 단 아래쪽으로 하면 사실은 표석은 원위치가 아닙니다.

○ 000 팀장

말씀하신 게 계단 끄트머리 자리가 지금 절개지 맨 밑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계단으로 더 나가야, 공원에서 더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 000 위원
아마 그럴 걸요.
- 000 위원
땅 주인이 이쪽을 빌려주겠다고 한 거죠. 어쨌든 빌리는 입장이니깐요.
- 000 위원
나는 찬성을 했는데 이것은 또 엉뚱하게 얘기하니깐요.
- 000 팀장
여기서 정하시면 됩니다.
- 000 위원
원칙이 있어야죠.
- 000 팀장
가급적 원위치를 찾아가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요즘은 예전과 조금 달라서 앱 등을 통해서 답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원위치에 가야 여기가 그 장소라는 것이 설명이 되거든요.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 000 위원장
원위치에 세우는 게 좋기는 좋은 건데 이렇게 옮기다 보면 누가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볼 거예요? 건물 뒤쪽 나무 숲속의 주차장 앞에 누가 here를 찾아가요? 일부러 앱을 보고 찾아가면 모를까 지나가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 000 팀장
그런데 원래 협률사 터가 이렇게 규모가 작았는지 아니면 규모가 넓었는지 불분명합니다.
- 000 위원



사진을 보면 아주 큰 넓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문장이 달라진 게 원래 표석에는 극장 원각사 이렇게 있고 이번 내용은 원각사는 건물 이름이 아니고 요즘 말하면 회사 이름이죠. 그 회사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밝힌 거죠. 그 터에서 원각사 전에도 공원을 계속 했고. 그러니까 원각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협률사예요. 첫 번째는 협률사죠. 그것까지 넣자는 게 개정안이죠.

○ 000 위원

제가 좀 여쭙볼 게 있는데 지난번 자료검토 현장조사 결과로는 신문로 1가 56번지 구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표석 위치를 새로 세울 데가 1가 42번지로 옮겨서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는 지도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1가 56번지면 필지 자체가 대로변에서 안쪽으로 길게 되어 있는, 대로변도 있고 뒤쪽으로도 쪽 연결되는 필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뒤쪽으로 세울 필요는 땅인데...

○ 000 주무관

예. 그때 000 선생님하고 현장을 봤을 때 그리고 사실 민원을 제기한 측에서도 000 선생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운래는 이게 도로였는데 새문안교회에서 새 교회를 만들면서 여기를 막으면서 차는 못 다니고 주차장 출입구 정도로만 쓸 수 있어요. 여기가 평면이지만 보면 살짝 언덕이거든요. 아마 협률사가 있었다면 결국 이 언덕 지점이 아니었나 추정을 하면서 그러니 대로변보다는 이쪽으로 가야하고 이 현장을 봤을 때 그래도 표석이 설치되기에 보도블록이 있고 해서 여기 나무가 있는 화단 언저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위치에 가깝고 현장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위치로 잡은 겁니다.

○ 000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가 1914년에 작성된 지적도예요. 그러면 이 시점 언저리인데 신문로 1가의 56번지는 필지가 분할되지 않은 채로 지속적으로 대로변부터 주차장 있는 구역까지 필지 주인은 계속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어느 곳에 건물이 놓였다고 하더라도 주인은 같기 때문에 표석이 다시 보건대 그쪽에 놓일 이유는 없는 거죠.



- 000 팀장
현 위치하고 이전 위치까지 다 포함된 면적이 같은 소유자라는 말씀이시죠?
- 000 위원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도...
- 000 주무관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 다만 내용만 바꾸는 것으로 수정할까요?
- 000 위원장
위치만 바꾸는 것은 건물 안쪽으로?
- 000 주무관
결국은 도로변이 사실은 구청 보유지라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기왕 문안을 수정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면 표석을 위치로, 보다 이 택지에 맞는 것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000 위원장
저쪽 건물 쪽으로 더 들어가야 건물의 터가 의미가 있지 않나요? 길 쪽이니까요.
- 000 팀장
최근에 새문안교회를 짓다가 이 지역에서 매장문화재인 건물이 발견되어서 여기를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문안 전시관으로 해서 박물관으로도 자료를 해서 하려고 예전에 방송박물관에 있던 선생님이 접수하시고...
- 000 주무관
그러면 위치 등도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할까요?
- 000 위원장
56번지 도로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어때요?



○ 000 주무관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고 사료 검토를 해서 다시 할까요?

○ 000 위원장

그래요. 000 선생님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하시죠.

○ 000 팀장

건물이 새로 신축되면서 밖에서 안쪽 유구를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현장을 한 번 보시고 현 위치로 놔둬야 할지 약간 옮겨야 할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로 아예 이전을 해야 할지 000 선생님하고 현장을 보신 후에 최종결정을 해 주십시오.

○ 000 위원

예. 000 선생님이 보셔야겠네요. 지적도를 갖고 계시니까 현재하고 옛날 지도하고 겹쳐놓으면... 예전에 일본 에도막부 시대 지도, 메이지, 다이쇼 이렇게 해서 같은 지점을 딱 해놓으면 클릭하면 메이지 시대 이렇게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왜냐면 축도라든지 이런 게 분명하지 않지만 찾기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 서비스를 안 하더라고요.

○ 000 위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플로 그 지도가 만들어져서 저도 사실은 그 지도를 보고 이 작업을 한 거거든요.

○ 000 팀장

지금 저희가 사대문안 지표조사해서 1910년대의 지적도와 현재를 다 오버랩을 시켜서 셰이프 파일로 만들어서 유구가 있을지 없을지를 정하는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재청 사이트에 올라갈 수 있으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버랩을 시켜서 일반인들도 여기가 1910년대의 지번과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정확도가 아마 문제라서요.

○ 000 위원장

한국 컴퓨터 속 기 사무 소

A19/K0926/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40/55

Email : sokgisa88@daum.net



위치는 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문안은 37쪽의 1안, 2안이 있는데 2안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1안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 000 위원

1안이 나은 것 같습니다. 밑에 1902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연희회사라는 것을 만약에 넣는다면 설명을 해야 할 겁니다. 1안이 나은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럼 문안은 1안으로 가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 수진측량학교 터 표석 이전 및 문안 수정 타당성 심의.

■ 표석 이전 및 문안 수정 심의

□ <수진측량학교 터>

○ 000 주무관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난 2018년도 사료조사 결과 표석 이전과 문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네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를 올렸는데요. 첫 번째가 수진측량학교 터입니다. 현재 종로구청 입구에 세워져 있는데요. 사료 조사 결과 내용과 위치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특히나 유길준이 세운 것이 아니라 유길준이 소속되어 있던 단체가 수진궁 터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위치의 수정이 필요하고 다만 정확하게 위치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수진궁이라는 위치를 놓고 본다면 지금의 종로구청이 아니라 보다 더 동쪽인 현재의 지도상에 별표로 표시된 신라스테이광화문이라는 이 위치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사료 조사 결과입니다.

○ 000 위원장

지도에 나온 것처럼 별표의 신라스테이광화문 거기로 옮긴다는 얘기에요? 거기가 가깝다는 거예요?

○ 000 위원

예.



○ 000 위원

작년에 다 자료조사 한 거잖아요.

○ 000 위원

이 내용대로 고칠 것이냐 하는 거죠.

○ 000 위원장

예. 고치는 방향으로...

○ 000 위원

네. 문구도 그때 다 수정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건은 길게 논의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대체로 다 조사하시고 수정을 다 하신 거니까요. 큰 문제만 없으면...

○ 000 위원장

그러면 이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맹사성 집터>

<성삼문 선생 살던 곳>

○ 000 위원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일 것 같아요.

○ 000 위원

제가 이 뒤의 것은 지도 검토와 사료 검토를 했는데 위치가 잘못 비정이 돼서 검토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맹사성 집터와 성삼문 터, 도염서 터도 그렇고. 이 세 개는 제가 지도를 다 매핑해봤을 때 위치가 조금 정밀하게 다르게 찾을 수 있어서 그것은 좀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 000 주무관



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하면 맹사성 집터와 성삼문 선생이 살던 곳이라는 표석이 현재 사료상으로는 장원서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치가 문제가 있고 장원서 인근으로 옮긴다고 하면 장원서 표석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인근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맹사성 집터와 성삼문 선생 살던 곳이라는 표석도 현재 장원서 표석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옮기면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오른쪽, 장원석 표석이 설치되어 어디에 되어 있느냐면 정독도서관과 삼청동 사이에 있는 골목길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표석 주변으로 옮기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사료조사 결과였습니다.

○ 000 위원

이것을 할 때 기본적인 느낌은 맹사성 집터라는 표석이 과연 필요한가? 맹사성의 집이라는 근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후대의 전설이 이 동네 언덕에 맹씨들이 살았다. 그런데 그것도 지도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실은 물음표가 있는 표석이죠.

○ 000 주무관

아예 표석의 이전을 논하기 전에 표석이 계속 현존하는 것이 필요한가.

○ 000 위원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하라니까 내놓은 거죠.

○ 000 위원

사실 집터라고 하기에는...

○ 000 위원

불가능하죠.

○ 000 위원

네. 맹현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맹감사현이라고 그 명칭 두 개가 중복적으로 반복적해서 다른 지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맹감사는 맹사택이라는 사람의 직함이었고 그 사람은 맹사성보다 상당히 후세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맹사성은 본래 집은 아산 맹씨행단이



맹사성의 집이기도 해서 이 근처 언저리에 와서 살기는 했겠지만 꼭 여기가 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명 자체가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그 지도에 있고 이게 일제강점기 때도 맹현이라는 지명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15년의 1만분의 1 지형도를 봤는데, 정독도서관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지금 길이 여기서 이렇게 뚫려 있는데 1915년도의 지형도를 보면 이쪽 길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민대식의 집이고 여기가 박재순의 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으로 보자면 신문지상에 나온 것 중에 1922년에 보면 민영휘가 사는 맹현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민대식이 민영휘의 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맹현 자체는 여기에서 이리로 넘어가는 이곳이 맞고 이 반석빌라 언저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겨울소나타를 촬영했던 언저리로 해서 고개를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고개는 맞아요. 맹현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로 볼 수 있어서 맹현은 여기인데 맹사성 집터의 표석이 이 언저리에 있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 000 위원장

더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 000 위원

그런가요? 어쨌든 맹현 자체의 위치가 잘못 비정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장원서인데 장원서 표석이 아마 여기 이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길을 중심으로 이쪽은 되게 높은 축대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언덕이고 이 안쪽은 아래로 낮은데인데 기록들을 보면 장원서는 꽃도 키우고 등등 하는데 가장 나중 기록을 보면 대한매일신보에 장원서를 혁파하면서 그 동산을 박재순이라는 사람이 황제의 칙서를 받았으면서 자기가 점유했던 집에 담벼락을 치는 내용이 대한매일신보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지도에 나오는 박재순의 집터가 바로 이 뒤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원서 터는 여기 건물 뒤쪽에 있는 언덕인 거죠. 그다음에 성삼문도 다 이 언저리기 때문에 보자면 성삼문의 표석은 아마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1915년도의 지적도를 보자면 성삼문의 집에 명세일필 지적도를 보면 여기는 1915년보다 14년쯤 후에 작성된 1929년의 지적도인데 이 지적도를 보면



이렇게 된 언저리 이 안쪽에 필지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는 이렇게 되어서 그 땅을 이쪽으로 편입해서 이 옹벽을 따라서 도로가 난 것이어서 결국은 이쪽이 원래 만약에 성삼문이 심었다는 나무의 표식이 있는 터를 기준으로 보자면 표석은 이 옹벽의 어디를 집터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반대편에 뒤편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후에 여기 도로가 이쪽으로 편입되면서 이 땅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된 거니까 표석은 반대편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쨌든 이 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좋은데 옹벽 뒤에 어디 집 놓을 자리도 없는데 옹벽을 향해서 집터 표석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000 팀장

저쪽에 설치할 만한 장소는 없는 거예요?

○ 000 위원

로드맵으로 봤는데 작은 일반 주택이나 마트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앞에 표석을 세우기는 모호하기는 합니다.

○ 000 주무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성삼문 선생 살던 곳은 현재의 표석 명칭을 정하는 원칙과도 많이 위배되어서 만약에 이 표석을 이전하거나 현존을 시킨다고 하면 명칭도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점은 사료조사 결과에서도 제기가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가 필요합니다.

○ 000 위원

어차피 좀 바뀌야겠네요. 성삼문 선생 살던 곳 이것은 좀 아니네요.

○ 000 위원

살던 곳이 저는 더 좋은데요. 집터보다는 살던 곳이... 꼭 한자로 써야 하나요?

○ 000 위원장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집터라고 했을 것 아니겠어요. 맹사성 집터가 있고 성삼문이 살던 곳이라고 하면... 통일한다면 성삼문 집



터라고 해야겠죠.

○ 000 주무관

굳이 양 도로변 중에 선택을 해야 하면 현재 장원서 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반대편 도로변에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000 팀장

그런데 설치할 곳이 없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사람 넘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 000 위원

그때 이야기들이 장원서라는 것은 훨씬 넓었을 텐데 성삼문 집하고. 그래서 논란들이 있었죠.

○ 000 위원

바닥 레벨 차이도 확 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세우는 것은...

○ 000 주무관

그러면 사실 지금 정독도서관 주변으로 표석이 3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기도감 터, 그리고 오늘 논의가 됐던 성삼문 선생이 살던 곳이 지금 정독도서관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두 개가 다 이전이 필요하다는 게 사료조사 결과였고요. 그리고 장원서 터는 정독도서관 입구는 아니지만 정독도서관 담벼락 아래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정독도서관 담장 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논의된 것으로 따지면 이 3기가 다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의결이 됐더라도 이전이 필요하다면 현장에 나가서 다시 검토하고 차제에 옮기는 김에 다 같이 위치를 이전하는 것을 논의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맹사성 집터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맹현은 지금 사람들이 쓰지 않기 때문에 맹현이라고 하는 표지석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000 위원
그렇죠. ‘맹사성을 비롯한…’ 이렇게 해야하죠. 맹현이 늦게까지 남아 있다고 했으니까요.
- 000 위원
표석 수정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 000 위원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성삼문 집터처럼 확실하면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라면 그 일대 중의 한 곳인데 지명 유래 내지는 맹사성이 지니는 역사성이 있으니까요.
- 000 주무관
그러면 표석의 명칭부터…
- 000 위원
명칭은 맹현으로…
- 000 위원
그런데 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맹현은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맹현.
- 000 위원장
제목을 맹현으로 바꾸고요. 그러면 문구는 맹사성이 살던 집터라는 것은 다 빼야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맹사성의 후손들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써야 하는 건가요?
- 000 주무관
그렇다면 맹현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지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이 고개에 맹씨 후손들과 그 집안이 이곳에 거주를 했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명칭이 맹현이 되고 그것을 살리는 쪽으로 수정할까요?
- 000 위원



예.

○ 000 팀장

그러면 장소를 굳이 안 옮겨도 되나요?

○ 000 위원

이게 설치된 정독도서관 거기는 아니고 세울 거면 고갯마루의 가장 정점에 세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일본 사람들도 겨울연가 때문에 그 고개를 넘으면서 자주 보는 데라서 그쪽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그러면 맹현 표석의 위치는 지금 있는 곳에서 한참 내려와서 반석빌딩이라고 되어 있는 쪽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 000 위원

옛날 지도로 33~35번지 언저리인데요. 현장을 보고 적절한 위치를 찾는 게 어떨까 해요.

○ 000 위원장

예. 위치도 현장 검토 후에 옮기는 것으로 하죠.

○ 000 주무관

그러면 문안은 다시 제가 000 위원님께 여쭙보고 다시 수정을 하고요.

○ 000 위원장

성삼문 집터도 마찬가지로 장소도 옮기고요.

○ 000 주무관

예. 두 건 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다음에 도염서 터가 남았네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 <도염서 터>

○ 000 주무관

도염서 터는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북쪽으로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주차장 입구 쪽에 표석의 형태도 돌로 되어 있는 벤치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사료조사 결과 이 도염서 터가 이미 세조 때 폐지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드러내는 쪽으로 문구가 수정되어야 하고 위치 또한 현재는 도염서가 원래 소속되어 있던 공조의 의미를 되살려서 아마 현 위치를 잡은 것 같은데 보다 더 안쪽으로, 즉 도렴동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쪽으로 위치를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사료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위치가 세종문화회관 북쪽에 있는 주차장, 세종대로 변에 있는데 이것이 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외교청사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쪽도 차로변인데요. 이 도로변에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정확한 지번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예전의 지명을 살리는 의미에서 도렴동으로 이전하자는 것이 수정방안입니다.

○ 000 위원

중요한 것은 아직도 논의 중의 하나가 이 발음을 다들 ‘도렴동’, ‘도렴서’라고 하는데 그것을 꼭 ‘염’이라고 써야 하는가. 실제로 아무도 ‘도염’이라고 발음을 안 하거든요.

○ 000 주무관

현재 지명도 도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장

통일시켜 주는 게 좋겠죠.

○ 000 위원

그것은 표석이니까 국립국어원에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 000 주무관

발음의 문제라면 이것도 역시나 같이...

○ 000 위원

도염서에서 도렴동이 유래됐는데 변화된 게 원래의 명칭을 잡아먹는 것은 또 문제가 있죠.

○ 000 주무관

이것은 국어원에 계신 전문 위원이 계셔서 같이 다 결정해 주시면 검토를 받겠습니다.

○ 000 위원

고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원래 이 도염사, 제용감은 공조 소속이 아니라 호조의 속아문이에요. 그래서 공조는 훨씬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고 여기는 사헌부가 있던 자리라서 그 관계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61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 도렴동이라고 하는 한자가 이쪽 길을 향해서 보도록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도나 도면에 옛날 사람들이 글씨를 쓴 것은 해당하는 지역에 있던 관서나 모든 것들이 입구가 그쪽으로 나기 때문에 그쪽 방향을 해서 글씨를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은 다 구거 등이 전부 다 막혀버렸지만 실제로는 경복궁에서 내려오는 구거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래 옛날 지도를 보면 제가 지금 옛날 도성배치도와 현재 지적도를 매핑한 건데 여기에 있는 이 물길이 경복궁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천으로 합쳐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은 도염동계라고 해서 도염서에서 용역을 하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라서 도염동계이라고 되어 있고 이쪽은 도렴동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사직로변을 향해서 이 글자가 되게 오래도록 지도에 표기가 되기 때문에 도염서의 기능상 염색이나 이런 천을 염색하는 문제면 결국은 물길 주변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로변을 향해서 관서가 향하고 있는 게 맞다고 본다면 여기에 있는 작은 필지는 너무 작아서 12번지로 비정을 했나요? 12번지면 필지도 너무 작고 사헌부의 뒤쪽에 후미진 곳이어서 거기보다는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렴빌딩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옆이 종교교회예요. 여기가 종교천이고 종교교회가 있고 도렴빌딩이 있기 때문에 상



황으로 보자면 저는 도림빌딩 앞에 도염서의 표석을 세우는 게 아주 오래 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명이나 지역의 유래를 보는 데 더 좋지 않을까. 너무 구석진 데에 집어넣는 것은...

○ 000 위원

그리고 거기가 바로 청사 뒤잖아요.

○ 000 위원

예. 예전에 종교교회나 도림빌딩 들어가기 전에 내수동에 한옥들이 전부 다 밀집되어 있었잖아요. 제가 저기 한옥을 전부 다 철거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들어가서 하기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이 동네의 분위기와 20년 전만 해도 전혀 다른 분위기여서 그때 분위기로 보자면 어쨌든 이 길보다는 이 길에서는 사직로를 향해서 관서가 바라보고 있었다고 비정하는 게 선생님들께 동의하신다면 저는 도림빌딩 앞에 표석을 세우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000 위원

대로변인데다가 사람의 왕래도 많고 도염사가 아까 월각사처럼 조그만 것은 아니고 크게...

○ 000 위원

예. 관서인데 이게 제용감으로 합쳐지면서 원래 관서 터가 일반 사람들의 주거지로 분할되는 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저때 애먹은 것은 동네 이름 빼고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 000 위원

네. 그래서 저희는 땅의 변화 과정을 보는 사람들이고 물길이나 도로가 이후에 어떻게 계속 활용됐는가가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보는 것이어서 제가 물길, 도로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런 의미는 있어요.



- 000 위원
어차피 옮긴다는 거잖아요.
- 000 위원
한 번 가서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000 주무관
예. 결국 옮기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도 필요한데요. 그때 가서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염사는 문안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000 위원
지금 수정해서 제시하신 거잖아요.
- 000 위원장
지금 제용감 터라고 하는 표석은 없나요?
- 000 주무관
네. 도염서와는 전혀 다른 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 000 위원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나 초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 000 위원
통합되어서 쪽 있으니까요.
- 000 위원
도염서는 불과 몇 년 없었어요?
- 000 위원
존재하는 시기 자체는, 그러니까 단독의 관서로 존재한 것은 조선 전기 초기에만 있었고 나중에 제용감...



- 000 위원
70년 정도밖에 안 되네요.
- 000 위원
그래서 도염서 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선시대라고 하는 거겠죠.
- 000 위원
그런데 차라리 제용감 터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제용감 터는 전혀 다른 데 있어요.
- 000 위원
그런데 그렇게 통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계속 쓰이고 있습니까?
- 000 위원
지명으로 남아요.
- 000 위원
그러면 관청명으로는?
- 000 위원
수진궁이 되게 오래도록 있었는데 원래 수진방에서 수진궁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 000 위원
아니, 관청 자체에 도염서라고 하는 관청 명칭은 언제 없어져요?
- 000 위원
1460년이 되면서...



○ 000 위원

그런데 사실 염색을 한 기능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 000 위원

기능은 남아 있어도 이름이 없어진 채로 조선왕조 600년 중에 겨우 60년 있었던 명칭이, 그것도 초창기에 있었던 명칭이… 도염이니까 무슨 일을 한다는 게 훨씬 확 드러나서 남아있기는 하더라도 엄격히 따지면 도염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 데가 다른 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500년은 있었는데.

○ 000 위원

다른 기능을 한 기관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통합이 된 거죠. 그래도 그 일은 계속 하는 거니까요. 염색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하거든요.

○ 000 위원

중요한데 차라리 그 명칭을 쓰는 게 낫지요.

○ 000 위원

그런데 제용감 터는 따로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약간 살려주는… 그럼 아예 000 선생님 말대로 초기라는 말을 넣어주는 것도…

○ 000 위원

그래요. 차라리 조선초기라고 하면 돼요. 조선시대를 빼면… 쪽 가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통합되었지만 도염서는, 이게 만약에 제용서로 통합되었다면 같은 ‘서’니까 완전히 없어졌구나 하는데 제용감에 통합되었다고 하면…

○ 000 위원

그러면 세조 때 통합되었다고 하니까 조선 초기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 000 위원

그런데 위에 ‘조선시대’ 이렇게 해놓으면 독자들이 오독한다는 말이에요. 조선시대 내내 있으니까 지금까지 저도 착각하듯이 계속 왔기 때문에,



○ 000 위원장

그냥 조선시대라는 말이 쓰여 있으니깐 그것을 조선 초기라고 문안으로 바꾸면 그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 000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기능은 조선시대 내내 계속된 거거든요.

○ 000 위원장

제용감으로 통합되었으니깐 기능은 그 안에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그냥 관청이라고 하지 말고 도염서는 염색을 담당하였다. 이렇게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조선시대 내내 뒤의 염료 제조, 직물 염색은 했으니깐. ‘도염서는 … 했다.’ 이러면 되죠. 학교는 가르쳤다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모호하니깐 마치 저렇게 되면 담당하였는데 1460년에 통합되었다 이것은 말이 되었잖아요.

○ 000 위원장

문장에 의미가 특별히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 000 주무관

그러면 명칭과 문안은 원안으로 가되 위치는 현장조사 후에 다시…

○ 000 위원장

예. 조선시대를 조선 초기로 바꾸고 위치만 현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옮기는 것으로 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